‘스마트한 악취관리’ 시동

익산시, 실시간 ‘악취측정 차량’ 도내 최초 도입

사업장별 배출성분 분석, 악취발생 시 추적·관리

익산시가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악취원인 규명과 분석을 위한 최첨단 관리시스템인 실시간‘악취측정 차량’을 도내 최초로 도입했다.

익산시는 24일 정헌율 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측정차량 운행 및 측정기기 시연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15인승 차량을 개조한 악취측정차량은 6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기상측정기와 악취포집기, 분석기기, 무선통신장비 등이 탑재되어 있어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종 외에도 1천600여종의 화학물질 분석이 가능하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는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악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자체적으로 분석 차량을 이용해 악취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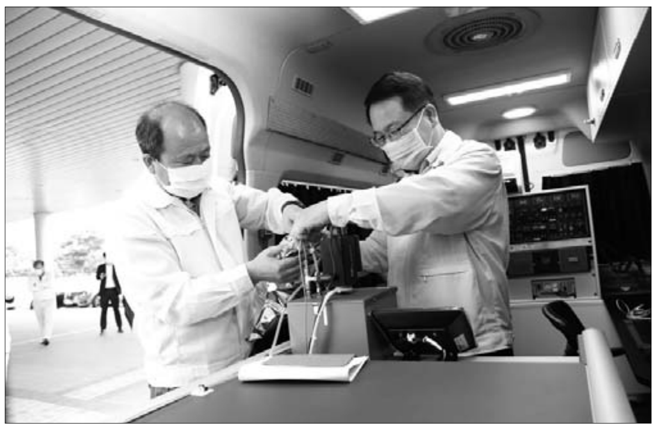
시는 악취측정차량을 활용해 악취관리지역과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별로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해 측정하고 악취배출사업장의 배출구에서도 시료를 포집하여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주요 물질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업장별로 악취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구축되면 악취 발생 시 원인 사업장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확인하고 고농도일 경우 포집기를 통한 악취 포집이 가능해 행정처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단속 뿐 아니라 분석 결과 오염물질이 높게 나타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 개선(교체)과 세정수, 활성탄 등 소모품 교체 주기를 점검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이어 악취조사용역, 악취측정 차량 등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법을 통한 악취관리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야간 악취상황실(☎063-831-8020)을 운영하여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등 악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악취원인 규명과 분석을 위한 최첨단 관리시스템인 실시간‘악취측정 차량’을 도내 최초로 도입했다.

군산대학교가 군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센터)는 11월까지 위생 특별프로그램인 ‘영양사 출동서비스’를 운영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아동 급식 지원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출동서비스’ 운영

군산대학교가 군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센터)는 11월까지 위생 특별프로그램인 ‘영양사 출동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집단)를 대상으로 ▲급식 전 단계 참여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골고루 식판 차리기) ▲배식준비(식탁 소독 및 배식량 측정) ▲교사 대상 1인 1회 적정 배식량 교육 ▲식사지도 ▲잔반 수거 및 잔반량 측정 ▲프로그램 결과 설명 및 보고서 발송 등의 교육지원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2018년도부터 운영하면서 관내 어린이 급식소 관계자에게 영양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식생활 교육과 식사지도를 전문 영양사 선생님이 진행해 주니, 아이들이 더 골고루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현희 센터장(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교수)은 “이제 이론교육만 전달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철도공사 전북본부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

익산시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인구 늘리기 릴레이 네 번째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익산시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인구 관련 각종 시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3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광모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역 부역장, 익산열차승무사업소장, 익산기관차승무사업소장, 익산차량사업소장, 익산전기사업소장 등이 모두 참석해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본부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익산시는 협약에 따라 △인구 관련 인식 전환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 △인구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을 지원한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소속 직원과 가족 인구 늘리기 실천 운동 확산 △익산에 거주하는 소속 직원과 가족 바른 주소 갖기 전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사내 분위기 조성, △시 인구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광모 전북본부장은 “익산 인구가 늘어나야 철도 이용률도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므로 익산시와 함께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철도 도시인 익산시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상생 협력 관계이므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전북본부가 도움을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교육기관, 여성단체, 기업체 등과 계속해서 인구늘리기 릴레이 실천협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신청하세요”

군산시, 최대 150만원 지원

군산시가 전북도와 함께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지난 5월 1차 모집에 이어 지난 23일부터 2차 모집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다 실직한 청년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됐다.

모집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이하(1980년~2002년생) 청년 중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20.1.20 전후 15일 이상 근무하다가 공고일 현재 실직 상태인 청년이다.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원자격 중 1개월 이상 근무 및 실직 조건을 완화했다.

선정된 청년은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2일까지이며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7층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산지유통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익산시와 익산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2019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평가 및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각각 2년 연속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56억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무이자 자금으로 확보해 참여 조직들의 원물 확보 자금 지원에 쓰이며 이로써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전국 85개 통합마케팅 조직을 평가한 가운데 익산시와 익산탑마루조공법인이 지난 1년간 규모화, 부가가치, 건전성, 조직화 및 전문화 등의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익산시 지역협의회 열려

익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2020년 익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익산경찰서,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민주평통, 새마을회 등 9개 유관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관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 및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지역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김진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협의회장이, 부위원장으로는 박정수 익산경찰서보안협력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반려식물 무료 배포

익산시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꿔온 미세먼지 정화식물 등 반려식물 2만여개를 어린이집 초등학교, 복지시설, 경로당, 관공서를 비롯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한다.

익산시가 시행하는 반려 식물 육성·배포 사업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전북익산시니어클럽,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등 3개 수행 기관에서 장미허브, 로즈마리, 아이비, 백일홍, 천일홍, 다육이 등 20여 종의 식물 2만개를 재배하는 것으로 특히 미세먼지 정화 식물 재배는 익산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국 최초 도입했다.

시는 7월 말까지 7,000개를 배부하고 연말까지 1만3,000개를 추가로 배부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반려식물은 미세먼지가 많은 봄, 가을철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치매 예방, 우울증 해소,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장양원기자